것도 덧붙여주신다. 하지만 관장님 말씀은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혼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녀석, 관찰을 끝내고 그리기도 마무리 단계, 이제 자신이 관찰한 식물엽서를 완성해서 줄에 매달아 놓을 거다. 그리고 하나씩 친구들에게 설명해줄 수있다면 오늘 소풍의 목표 또한 달성. 친구들이 관찰하고 그려낸 식물들이 오름 빨랫줄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린다. 다른 친구들, 다른 모둠에서 살펴본 식물이 무엇이었는지 둘러본다. 갈퀴덩굴, 현호색, 뱀고사리, 산딸기 식물 엽서가 저마다 다른 이야기로 아기자기 꾸며져 있다. 엽서를 지키며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는 모둠원도 있다. 귀 기울이며 들어본다.

이제는 신나게 노는 시간이다. '3분 안에 솔방울로 모둠명을 완성하라' 우승팀은 〈인동고장〉이다. 솔방울을 줍는 팀과 만드는 팀으로 분업화한 덕분에 제일 먼저 빙고를 외칠 수 있었다. 솔방울이 부족하니 운동화를 벗어 글자를 만들어도 좋다고 하였다. 〈마농꽃〉 빨간 운동화 검정 운동화 총 출동이다. 〈고냉이풀〉 솔방울로만 완성한 자연주의다. 〈하늘레기〉 너무 어려워 운동화가 자음도 되고 모음도 된다. 두 번째 놀이, 10분 안에 보물을 찾아라!! 대나무에 숫자가 적혀있다. 풀숲에 숨어 있단다. 눈을 크게 뜨고,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강아지처럼 기어보아도 나오지 않는 대나무 보물 막대기. 에고 너무 힘들다. 역시 보물 찾기는 운이다. 고냉이풀 모둠이 우승이다.

운동회를 떠올릴 때면 항상 흥미로운 경기, 줄다리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다. 모둠 아이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오래된 현수막을 엮어서 줄을 만들었다. 모둠원들 중 대표격이라 할 만한 선수들이 맨 앞에 선

다. 몸체만 보아도 승패가 보인다. 오
늘 큰 역할을 하며 우승으로 이끈 녀석
은 만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모둠원들
에게 오랜만에 자신도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이를 아는 모둠원들도 "오빠 때문이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누구는 좋겠다. 민오름 소풍 시간이 끝나간다. 똥
마렵다고 보채는 두 명을 데리고 100미터 달리기로 내려가는 관장님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끼득거린다. 느낌 글 쓰고 발표하고 마무리한다. 여전
히 봄볕은 뜨겁다.

목표 / 민오름에서 소풍을 즐기자

(노형초 4 양인영)

방법 오름 정상에 가기 전에는 식물을 관찰하기 위한 낮은 자세가 중요하며, 오름에 가서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3종 경기에 참여한다. 아, 보물찾기는 다시 낮은 자세가 좋다.

내가 만난 세상 우리는 벌써 민오름을 두 번이나 왔다. 오름은 오를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다. 길도 생기고, 나무도 없어지고..... 그런데 마음은 올 때마다 행복하다이다.

가장 기쁜 일 루페를 이용하여 현호색 씨앗 속의 검은색 알 같은 것을 관찰할 때 기분이 좋았다.

가장 큰 실수 너무 우리 모둠 힘이 강하여서 줄다리기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결승전을 한 번 더 해야했으나, 끊어진 줄을 많이 가진 우리가 이겼다. 정말 이긴 건지, 큰 실수인지 헷갈린다.

충고 관찰을 핑계삼아서 식물들을 괴롭히지 말아줘. 그리고 막대기로 뚝뚝 치지도 말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오름마다 이름이 있다는데 그 이름에 대해 알고 싶다. 제주에는 360개의 오름이 있다고 한다. 그 이름들을 모두 알고 올라보고 싶다.

순서

- 모둠별 출석 확인과 목걸이 이름표 걸기
- 민오름 입구에서 만나다
- 미션지 뽑기 (현호색 꽃과 씨앗 관찰-갈퀴덩굴 팔찌 만들기- 뱀고사리 잎의 변화 관찰-산딸기 꽃과 열매 비교 관찰)
- 루페로 관찰하기
- 채집 식물 이용하여 식물 엽서 만들기
- 오름 정상 빨랫줄에 매달기
-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식물 엽서 이야기해주기
- 민오름 3종 경기 (솔방울로 만들기- 대나무 보물찾기-줄다리기)
- 책정원-그림책 읽어주기와 함께 노래하기
- 발자국남기기-아코디언북에 쓰는 작은 일기

준비물

목걸이이름표, 모둠깃발, 출석부, 아코디언북, 식물자료와 미션지, 메머드지, 루페, 줄, 대나무, 지끈, 집게.

평가와 유의사항

10번의 활동으로 모둠원들끼리 이젠 정말 친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아코디언 북에 하나씩 쌓여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과물들이 보인다. 특별히 아직도 잘 참여하지 못하고 맴도는 아이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협동심을 배워간다는 어떤 녀석의 말처럼 모둠원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더불어 모든 세상으로 이런 협동심이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오늘 함께 읽은 책

1. 변신
2. 빨간 버스
3. 멋진 뼈다귀
4. 모귀는 왜 귓가에서 앵앵 거릴까?

♪함께 부르는 노래 ♬

또랑물 (권태응 시, 백창우 곡)

고추밭에 갈 적에
건너는 또랑물

찰방찰방 맨발로
건너는 또랑물

목화밭에 갈 때도
건너는 또랑물

찰방찰방 고기 새끼
붙잡는 또랑물

백두산 호랑이 (백창우 시, 백창우 곡)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 나가신다
동네 아이들아 다 나와라
호랑이 등에 타고 놀아보자

큰 길은 성큼성큼
좁은 길은 조심조심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

큰길은 뚜벅뚜벅
좁은 길은 사뿐사뿐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